







25



2



31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 교회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매리온 지 롬니  
고든 비 힝클리

###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케이 애쉬튼  
브로스 알 맥쿱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 고문

엠 러셀 벨라드 이세  
로렌 시던  
렉스 디 피네가  
찰스 에이 디데이  
조지 피리  
에프 엔지오 부쉬

# 차 례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킴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

질 의 응답 ..... 8

150년 전에 받은 건강 율법.....제리 에이번트.....13

여러 질병과 관련된 담배와 술 .....존 에이치 홀브룩.....16

지혜의 말씀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찰스 알 스마트.....18

육체적인 율법으로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 .....로이 더블류 독시.....20

지혜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움베르토 곤뜨로 조르지.....23

축구와 지혜의 말씀 .....라파엘 덴턴 테이세이라 다 쿠나.....25

나는 어떻게 커피마시는 습관을  
극복했는가? .....루이자 비탈로니.....26

우리의 간증을 기억함 .....고드포레도 에이치 에스케라.....28

몰모니즘 ..... 30

멋진 모험 .....엘레인 캐넌 본부 청년 회장.....31

부러지지 않는 빗자루 .....비버리 스위들로우 브라운.....42

친구가 친구에게 ..... 46

성경의 형제와 자매들 .....애그니스 캠프튼.....49

해외 소식 ..... 50

지역 소식 ..... 52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년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년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 권 : 제219호, 제19권 제11호  
등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83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데이비드 씨 베틀러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우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631KO PRINTED IN SEOUL, KOREA 11/83

© 1983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킴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수년 전에 미국의 북극 탐험가인 로버트 피어리 선장이 북극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관한 기사에서 그 저자는 우리 시대에 상당한 의미를 갖는 문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에서 [피어리 선장]은 하루 종일 북쪽으로 여행했으며 그의 썰매를 끄는 개들은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전진했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자신의 위도를 알아보려고 방위를 측정해 보고는 그날 아침보다 더 남쪽에 있음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해류에 의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빙산 위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주 우리가 모두 이 빙

산 위에서 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나 우리 발 밑의 땅은 꾸준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어리 선장이 북극을 정복한 것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무서운 속도와 힘으로 발명과 발견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학, 첨단 기술, 식량 공급, 물질, 기술, 처리 등에서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에 그 이전의 500년 간의 것보다 더 많은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꾸준히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은 해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도 없는 대단히 깊고 방대한 세상의 조류에 의한 것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해류에 의해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빙산 위에서 북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인간이 처한 위치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방위를 측정할 때 우리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더 남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어리 선장보다 훨씬 더 놀라고 경악하게 됩니다.

“20세기의 첫 삼분의 이의 세월에서는 19세기의 희망과 열의가 엄청나게 퇴보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자연을 정복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기 위한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의 목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낍니다.” (시드니 제이 해리스, 매저렛 뉴스, 1964년

1월 7일, 14페이지) 나는 이 기사를 다시 읽으면서 시드니 해리스가 현재 이 세상 상황의 여러 가지 면을 상당히 잘 요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인간은 많은 분야에서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첨단 기술, 식량 공급, 물질, 기술 및 처리 등에서” 우리는 전례없는 진보를 했으며 진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만 인간이 계속해서 정보를 미처 정리하지도 못할 만큼, 심지어는 아주 협소한 분야에 서라도, 지식이 빠른 속도로 축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많은 것을 적용하므로써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인간의 개인적인 품행과 서로를 대하는 분야에도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얻은 지식을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로서 담배가 폐암에 걸릴 가능성을 급격히 증진시킨다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는 가족 관계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의 원인과 거기에 따르는 병폐를 알면서도 또한 결혼 상담인 및 기타 복지 기관의 훌륭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혼율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결론을 지지하기 위하여 인용할 수 있는 수많은 예 가운데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인간이 처한 위치를 알기 위하여 우리가 방위를 측정할 때 우리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더 남쪽’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어리 선장보다 훨씬 더 놀라고 경악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께 새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이 좋지 못한 상황은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국제 연합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해결책이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학 지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장에 희망을 겁니다.

이 모든 제안이 각기 나름대로의 효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판단으로는 그 가운데 어느 것도 또한 그들이 모두 합쳐도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치료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그 가운데 어느 것

도, 알든 모르든 그 약점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은 이미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품행과 서로를 대하는 것에 관한 지식을 지역, 국가, 국제 수준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담배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부도덕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세상적인 문화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도덕에 빠져 있습니다.

정직과 기타 모든 도덕 원리에 관하여 정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을 속박하는 사탄의 철학에 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의 영향력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개구리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개구리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떨어뜨리면 즉시 뛰어나오지만 찬물이 담긴 솥에 넣어서 불에 얹어 놓으면 뜨거운 물에 들어 죽을 때까지도 가만히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과 그의 행동 율법으로 돌아서는 것이라는 올바른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찰즈 린드버그는 어린 시절에 “과학이 인간이나 하나님보다 더욱 중요하다.” 또한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 없으면 현대인은 생존할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난 후 그는 독일에 가서 과학에 있어서 세계의 지도자였던 이 나라가 폭격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인간의 문명이 계속 되려면 현대인은 그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로 과학의 물질적인 힘을 다스려야

**현** 대인은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의하여  
과학의 물질적인 힘을 지배해야 합니다.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리머스 다이제스트 1964년 2월호, 95-96 페이지)

물론 우리도 이러한 일반적인 주장에 뜻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담배와 폐암에 관한 통계나 이혼과 부도덕에 관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딤후 3:5) 부족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의 개인적인 습관을 바꾸거나 그들이 접진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나는 인류의 위대한 학문과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의 진보와 해결되지 않은 문

제와 쇠퇴하는 도덕을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이 사실에 대한 의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자질을 인식하는 능력이고 또 그것을 습득하는 기술입니다.

미국의 사전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해 아는 것 또는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 또한 과학에서는 “특히 물질적인 세계에 관련된 분명하고 잘 조직되고 분류가 된 지식”이며 정보에서는 “특히 독서나 관찰에 의하여 전해지거나 습득된 지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



해는 지식과 구별하여 “특히 인생과 행동에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건전하게 판단하고 사물을 폭넓게 다루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대가 타락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 능력의 개발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들어온 다음에 성령의 인도와 동반하심을 입음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식은 “사물에 대해 아는 것 또는 선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며 지혜는 “특히 인생과 행동에 실질적으로” 적용시키는데 있어서 “건전하게 판단하고 사물을 폭넓게 다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는 지식의 산물이며 지식에 의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그의 지식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티하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로 이루어졌느니라.” (나이 2 : 24)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이 만물에 대한 그분의 지식의 사물인 것처럼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만사를 다 알지 못하므로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많은 것을 알면서도 지혜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즉 사물에 대한 지식과 “인생과 품행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만물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둘째로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물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개선할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인간이 살

아게신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시편 111 : 10)고 밝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사용된 경외라는 말의 의미를 좀 조사해 보았고 시편의 저자가 이것을 무서움, 공포, 두려움, 경악 등의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가 무슨 단어를 쓰든지 실제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깊은 경외심”이라는 문구를 두려움의 정의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의 표현을 좀더 의미있게 적으면 “여호와를 깊이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문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깊은 경외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깊은이라는 말의 한 가지 정의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경외심은 참된 종교의 근간입니다. 깊은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또한 그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존경하는 태도와 함께 숭배하는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그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은 주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었으며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하게 판단하는 가운데……이것이 지혜의 기능입니다—주님의 영감이 미지의 것 즉 지식의 부족을 보상해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자주 보상해 줍니다. 예를 들어 네 갈래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는 낯선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만사를 아는 것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오는 영감은

완전한 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영감은 사물에 대한 지식의 부족만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수양에 의하여 개인적인 행동이나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아는 가장 높은 표준에 일치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혜와 지식을 구별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해 줍니다.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한 것을 보면 그가 영감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자신이 모르는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깊은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 그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하여 전과 하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는 다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지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만사를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현재 상태를 미리 아시고 오래 전에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이사야 29:14, 니이 27:26 참조) 주님은 이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오늘날 인간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들의 총명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혜를 상실하고 그를 버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다.”(교성 1:15-16)

또한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지혜가 없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상태는 편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에 지혜를 얻으려 한다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단계는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마 7:7)라는 말은 언제나 변함없는 약속이었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시편의 저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선포한 “깊은 경외심”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류를 이 탈출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경륜의 시대에 당신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속주를 다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알려고 하면 걸어야 할 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가 설명하신 방법으로 그를 찾아야 합니다……즉, 기도와 현대 및 고대의, 특히 현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찾아야 합니다. 그런 기도와 연구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음 단계는 회개입니다. 그런 신앙과 참된 회개 다음에는 침례와 성신을 받는 일이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설명한 이런 첫째되는 기본 원리와 의식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개념뿐 아니라 지혜의 근본인 “깊은 경외심”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지식을 받습니다. 그렇게 얻은 지혜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줄 뿐 아니라 만일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면 인간이 이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지혜를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회원이 된 중심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분명히 새겨 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감을 통하여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값진 진주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영감을 받는 것을 허용해 주실 것입니다.

굳건히 서라!  
그것에 빠지지 말라.  
단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을 옳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몇 가지 강조 사항 가정 복음 교육 토론 시간에 다음과 같은 점을 밝힐 수 있다.

①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이 사실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자질을 인식하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②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가 다른 지식을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지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③ 지식을 지혜로 바꾸는 이 능력의 개발은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오는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④ 주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⑤ 진전하게 판단하는 가운데……이 것이 지혜의 기능입니다……주님의 영감이 미지의 것 즉 지식의 부족을 보상해 줄 수 있으며 실제로 자주 보상해 줍니다. 그로부터 오는 영감은 완전한 지식이 표현된 것입니다.

## 토론 지침

①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에 관련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느낌과 경험을 이야기한다. 가족이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게 한다.

② 이 기사 가운데 가족이 소리내어 읽고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③ 이 토론은 방문하기 전에 그 가족의 가정과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까?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으로부터 그 가족의 가정에게 전하는 선교 사업에 관련된 메시지가 있는가? \*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답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잭 웨일랜드 래피드 시티의  
사우드 다코다 스테이크 부장단

**최**근에 교회 회원인 한 친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물론이기 때문  
에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습  
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놀  
랐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답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름은 말일성  
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이름으로 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의식은 모두 그의 이름  
으로 행합니다. 우리는 그에 관하여 성  
경에서 말하는 것을 모두 믿으며 또한 구  
세주에 관한 또 하나의 경전 즉 물론문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즉시 신대륙에 나타나신  
것을 이야기하며 그에 대한 두번째 증거  
입니다.”

흔히 이 정도의 이야기만으로 사람들  
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  
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떤 비회원 친구는 “그래도 당  
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  
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다시 이렇게 단순  
한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에 대한  
정의와 또한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인가  
에 관한 정의를 전하려 할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  
습니다.

어떤 것이 기독교를 구성하는가에 관  
한 명확한 정의를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교파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  
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꼭 받아야 한  
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  
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며 또 어  
떤 사람은 일요일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회원들이 우리가 그들이 믿는 것을 꼭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기독교  
에서 제외시킵니다.

이 일에 있어서의 문제는 그들의 정의  
의 기초가 되는 가상입니다. 그들의 정  
의에 의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  
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똑같  
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의 기본적인 신조를 공격하지 않고는 그  
런 사람에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을 확신시킬 방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적개심을 낳을 뿐입니다. 따  
라서, 저는 그저 자신의 간증을 전하고  
성령이 그들의 가슴을 부드럽게 하고 마  
음을 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그런 방식이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람이 우리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는 데 진지한 관심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의 신조에 관련하여 우리가 믿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 주려고 노력합니다.

바울의 기록에서 선정한 몇 구절에서 나오는 은사에 관한 교리는 은혜의 원리에 관한 그들 이야기의 좋은 모범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를 구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대속이 우리를 위하여 효력을 발휘하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참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며 일단 우리가 그분

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구원받기 위하여 아무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 2:8-9) 물론 우리는 이것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8절에서 그가 말하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은혜의 중요성과 그 위치를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베냐민왕이 물문경에서 그의 백성에게 행한 훌륭한 연설에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너희가 태초에 너희를 창조하시고 날마다 너희에게 호흡을

주시어 보존하시며, 너희 뜻대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순간순간 너희를 받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진실 전력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익한 중에 불과한 것이니라.” (모사이야서 2:21)

다른 기독교 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해야 할 전부라고 말하면 저는 니파이가 물문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부지런히 기록하여, 우리들의 자녀와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권고하였음으로,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압니다.” (니파이 25:23)

우리가 여하히 노력하더라도라는 이 문구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하여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고 의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가 흔히 잘못 해석되는 몇 개의 선정한 성구가 아니라 성경에서 은혜와 신앙과 사업에 관하여 말하는 것에 관련하여 그 전반적인 면에서 성경을 받아들인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행위도 역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인용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험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 것인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없는 몸이 죽은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야고보서 2:14-18, 20, 26)

비회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정의 즉 구세주께서 니파이삼서 27장에서 직접 주신 정의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구세주께서는 무엇이 참된 기독교를 구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세상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이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여 내가 사람들 손에 달렸던 것같이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선악간에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달린 것이매 아버지의 권세로 내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저

들이 각각 행한 대로 심판받게 하리라.

“누구든지 회개하여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는 흠족할 것이요, 저가 끝까지 참을진대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날에 아버지 앞에서 저가 죄없다 할 것이나……

“정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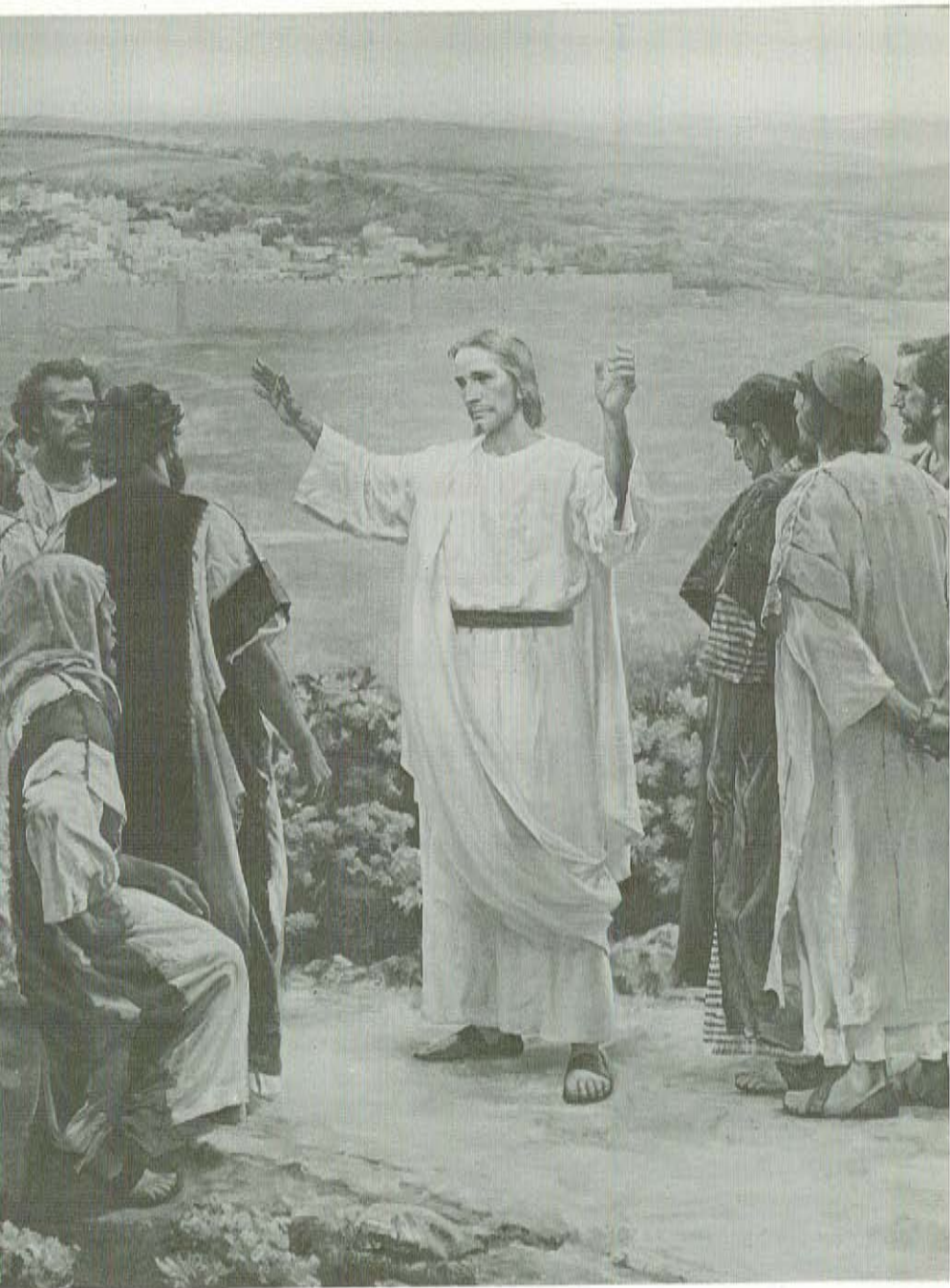
“이는 계명이라. 회개하라, 너의 온 땅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여 내 앞에 이르러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아 정결케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13-16, 19-21, 27절)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그 일은 단지 그를 구세주요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경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에 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기회에 관하여 중요한 말씀을 닦고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난 후에는 제법 많은 무리가 물몬의 땅에 함께 모여 엘마의 이야기를 들었으니, 엘마의 말을 믿는 자는 모두 그의 말을 들으러 함께 하였더라 엘마가 저들을 가르쳐 회개와 구속과 주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며,

“저가 무리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곳에 물몬의 샘이 있으니, (저들이 이같이 이름하였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해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 18 : 7-10)

또한 엘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침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힐렘이여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 너의 죽을 몸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으로 이미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마련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영생이 그대에게 임하시기를 비노라.”(모사 18 : 13)

우리가 정말로 구세주를 받아들인다면 그가 그의 사업을 행하시는 것을 돕고……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 주고

서로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맺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나면 비회원 친구는 우리의 믿음이나 여러 교리의 다른 점에 대하여 좀더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우리의 정의의 모든 중요한 차이점에 대하여서도 저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 신앙, 행위에 관한 토론을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이것도 흔히 있는 오해입니다……로버트 이 웰 장로가 198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차이점에 관하여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질문을 거기에 대하여 토론할 준비를 갖추는 목표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또 그 사람과 함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토론할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재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가 이 교회의 맨 위에 계시며 우리의 예언자에 게 말씀하십니다. \*



# 150년 전에 받은 건강 율법

게리 에이번트

**교**회 초창기부터 수백만 말일성도의 생활에 영향을 미쳐 온 지혜의 말씀은 150년 전에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1833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의 연기로 가득 찬 방의 담배로 더럽혀진 바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부인의 한 말씀으로 인하여 예언자가 주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으며 현재 교리와 성약 89편입니다. 지혜의 말씀은 항상 교리와 성약 89편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835년 판에는 80편이었으며 1845년에는 81편이었습니다. 1876년 판에는 89편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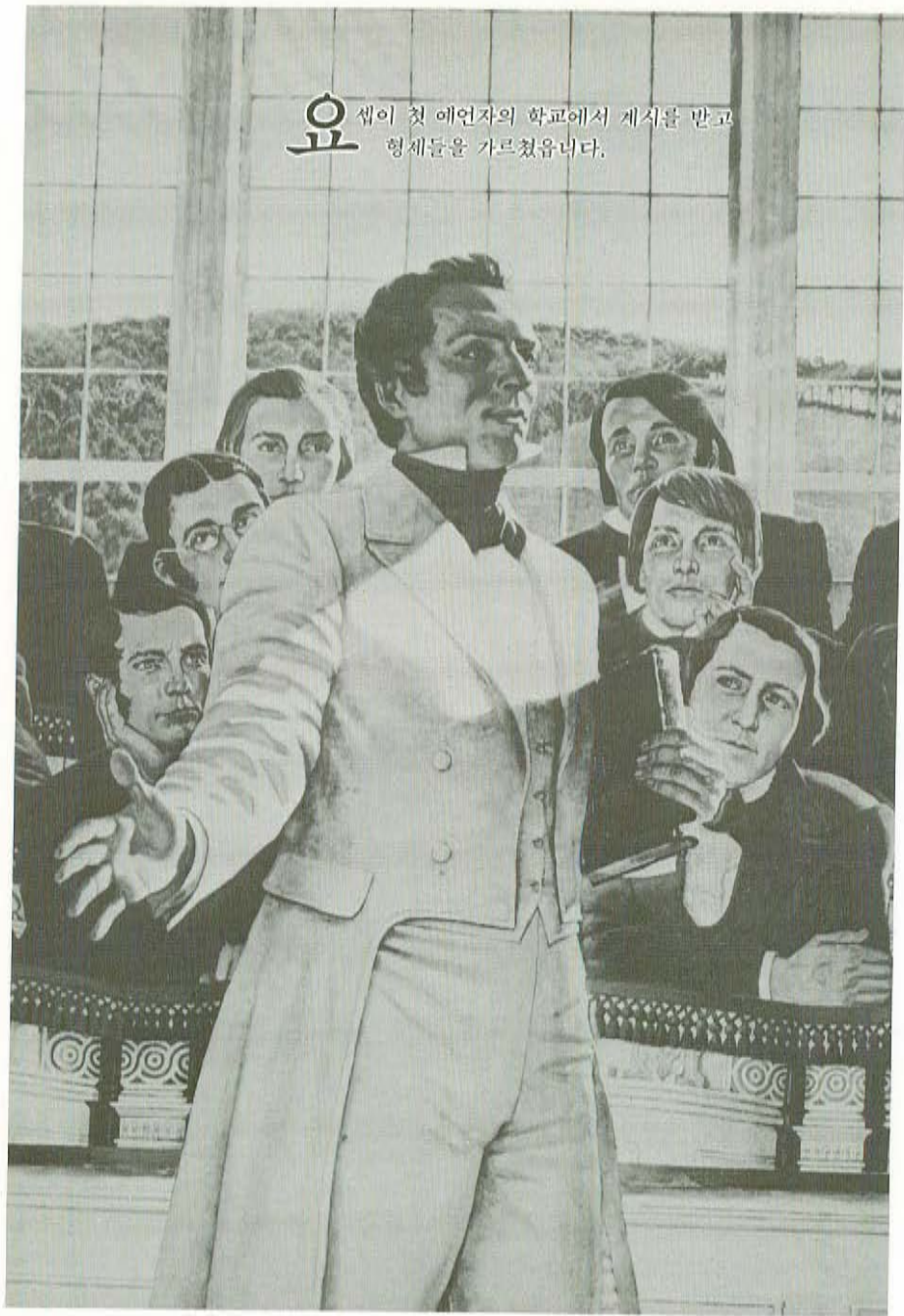
이 계명은 지난 1세기 반 동안 교회 회원이 더 오래 살고 인생을 더욱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1868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시에 거기에서 그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교회의 어떤 사람 못지 않게 지혜의 말씀을 받게 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과 그의 부인 엠마가 뉴엘 케이 핏트니의 가게에 붙어 있는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엌은 요셉이 계시를 받고 첫 예언자의 학교에서 형제들을 가르친 방 밑에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크기가 사방 3.5미터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 거리에서 오곤 했다. 그들이 아침 식사 후 이 방에 함께 모여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면서, 왕국의 위대한 일에 관해 이야

요셉이 첫 에언자의 학교에서 제자를 받고  
형제들을 가르쳤읍니다.





기하며, 입에서 파이프를 뱉 때마다 방 안 여기저기에 담뱃재를 흘리곤 했다.

예언자가 가르치기 위해 그 방안에 들어가면 담배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하곤 했다. 이리하여 마루가 더러워 청소하기 나쁘다고 아내가 불평하자, 예언자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장로들이 담배를 피우는 습관에 대한 것을 주님께 여쭙어 본 결과,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다.” (브리잠 영 설교집, 12:158)

1980-81 주일학교 복음 교리반 교사 보조 교재(PCSS56F8KO)제정과 241페이지)

그러나 1800년대 초기의 사회 생활과 금전 거래 방식으로 인하여 지혜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마련되지 않았읍니다. 술, 담배, 커피, 차는 필수품으로 여겨졌으며 19세기에 자주 교역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위스키, 담배, 커피 또는 차를 봉급이나 부채 상환의 일부로 포함시킬 때가 흔히 있었읍니다. 개척자들은 평원의 야생 동물이나 풍부한 소를 중요한 식료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서는 육류를 절제해서 사용하라는 새 계시의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읍니다.

1851년 9월 9일, 영 대관장이 연차 대회에서 계명으로 선포할 때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생각하지 않았읍니다. (밀레니얼 스타, 1852년 2월 1일) 그러나 요셉 스미스는 교회 정사 제2권, 482편에서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1837년 5월 28일 교회 전체 모임에서 회원들이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성임된 회원이라도 친분을 맺지 않겠다고 만장 일치로 결의했읍니다.”

조지 쥬 캐는 부대관장은 1892년 11월 15일 청소년 인스트라터에서 수많은 교회 회원들이 “육체의 건강과 힘의 유지와 복지에 관련된 이 율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오래 된 관습에 집착해서 그것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캐는 부대관장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뛰어나게 될 날이 오고야 맙니다……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안전을 약속받았으나 그 약속은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조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지키면 그 약속이 효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통계 숫자가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전체 주민의 70퍼센트가 말일성도인 유타주의 물론 가운데 폐암 발생율은 미국 전체의 평균보다 약 65퍼센트가 낮습니다. 유타주의 물론이 아닌 사람들은 미국의 다른 사람들과 거의 같은 폐암 발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타주 보건과에서는 유타주의 담배 소비가 1981년에 하루 평균 6.5개피라고 했읍니다. 전국 평균은 53퍼센트가 높은 평균 10개피였읍니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심장마비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발생률도 낮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타주 물론의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률은 미국 평균보다 35퍼센트가 낮습니다. \*

# 여러 질병과 관련된 담배와 술

존 에이취 홀브룩

의학에서는 담배와 술을 사용하는 것이 심장병, 암, 기증, 만성 기관지염, 경화증 등 여러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무능 상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대대적으로 공포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물질이 신경 계통에도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연구 결과 나타났습니다.

불타고 있는 담배는 수천 가지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입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우는 사람들은 일년에 5만 번 이상 뿜는 연기를 여러 가지 물질과 함께 두뇌를 포함한 중요한 기관에 보내고 있습니다. 니코틴, 일산화 탄소, 수성 시안화 물질 등과 같은 담배 연기의 구성소는 신경 계통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니코틴은 신경 계통의 자극제이며 진정제이며 이외의 수많은 기관에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담배 제품에 중독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산화 탄소는 세포에 산소를 운반하고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독개스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

지 않는 사람보다 2배 내지 15배나 많은 혈액 일산화 탄소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혈액 일산화 탄소라도 지적인 기능과 잘 조정된 절도있는 동작을 해칩니다.

수성 시안화 물질은 세포의 호흡을 막고 세포 내의 산소 결핍증을 일으키는 강한 독물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뇌의 동맥과 심장의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될 위험성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혈관의 고장은 뇌에 적절한 산소 공급을 막고 갑작스런 뇌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담배와 구강 피임약을 모두 사용하는 사람은 한 가지 충격(마비)을 받을 위험성이 2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담배로 인한 만성 폐질환, 기증, 만성 기관지염은 뇌에 산소 공급을 막고 과량의 일산화 탄소를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생하는 뇌 기능의 장애는 마비나 혼수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배 속에서 담배의 물질에 접촉함으로써 신경 계통에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담배를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어머니보다



작은 아기를 낳습니다. 이 태아 성장 지연은 머리의 크기를 포함하여 모든 면에 관련됩니다. 오랜 연구 결과 임신 중 담배를 피우는 여성에게서 태어난 어린이는 담배를 안 피우는 여성의 자녀보다 지적인 성장, 정서적인 발달 및 품행에 있어서도 결함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임신 기간 중 담배를 피운 수천 명의 여성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11세 된 자녀는 임신 기간 중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성의 자녀들과 비교할 때 읽기, 수학 및 전체 능력에 있어서 수개월 뒤떨어진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요약하면, 담배는 신경 계통의 구조와 기능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담배 연기는 신경 계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아직 완전히 연구되지 않은 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해답을 얻지 못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담배와는 대조적으로 술은 의학적으로 중요한 단 한가지 물질인 에타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경 계통의 진정제입니다. 에타놀은 공부를 방해하며 판단을 해치고 추리 능력에 장애를 가져옵니다. 심한 알콜 중독은 불분명한 말과 혼란 상태에서부터 혼수 상태와 사망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초래합니다. 술을 못마시면 경련, 환각과 발작, 심지어는 외상과 전염과 순환 계통의 마비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성 알콜 중독자는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펠라그라 피부병, 각기병, 괴혈병, 빈혈증 등과 같이 영양 실조로 인한 질병을 일으킬 때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개 말초 신경과 척수와 뇌의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콜 중

독자는 부분적인 또는 전체적인 뇌의 위축을 가져 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경성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알콜이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영향은 알콜 중독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서 나타납니다. 이런 아기는 심각한 정신 장애와 여러 가지 결함을 안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라는 태아에게 안전한 정도의 알콜 섭취량을 아직 규명하지 못했으므로 의사들은 임신 중에 술을 마시지 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담배와 술은 모두 중독성 물질입니다. 지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대부분이 담배를 끊고 싶어하지만 현재 그 중 성공하는 사람은 20퍼센트 미만입니다. 담배를 끊을 때 생기는 증세는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 불안정, 수면 장애, 지적 기능 장애, 느린 맥박, 뇌파 방식의 변화 등입니다. 정신적인 증상은 훨씬 오래 지속되는 반면 생리적인 변화는 대개 단 며칠밖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담배와 알콜을 사용하는 중독 증상은 이런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정서적, 사회적, 지적 댓가를 치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담배와 알콜은 태아와 아기와 어른의 신경 계통에 수많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그들의 정신이 최고로 훌륭한 기능을 발휘하는 기쁨을 가지며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까지 찾"게 될 것입니다. (교성 89:19)

\* 흠브루크 박사는 유타 대학의 내과 부교수이며 흡연과 건강에 관한 미국 의학 종합 보고서 편집자이며 국립 암 연구소의 고문이다.

# 지혜의 말씀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찰스 알 스마트

**담**배, 술, 뜨거운 음료 및 지나친 육식이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지혜의 말씀은 1833년에 주어졌지만 이 지혜를 뒷받침하는 엄청난 과학적 증거가 확립된 것은 최근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암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물몬의 낮은 암 발생과 70퍼센트의 주민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인 유타주의 낮은 암 발생에 관하여 수많은 과학적인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조사의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 아닌 유타주 외부의 조사자에 의해서 실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에 담겨 있는 개념은 암의 주된 위험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전체 사망의 20퍼센트가 암에 의한 것으로 매년 440,000명이

암으로 죽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암으로 인한 성별, 연령별, 사망률이 미국의 어느 주보다도 낮습니다.

가장 현격하게 적은 암은 담배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에 의한 사망률은 미국 전체와 비교할 때 48퍼센트가 적습니다.

수많은 조사에 의해서 거의 모든 암의 비율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서 늘어난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담배 연기와 직접 접촉하는 신체 부분 즉 입, 혀, 인두, 후두, 식도, 폐 등이 가장 위험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연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육체의 먼 부분도 강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사람은 피우지 않는 사람과 비교할 때 방광암에 5배나 더 많이 걸리며 신장



암은 2배, 췌장암은 1.7배나 높습니다.

흡연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는 암 즉 폐, 입, 혀, 후두의 암은 담배를 끊으면 90퍼센트 이상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마시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현재의 자료로는 연기를 마시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연기를 많이 마실수록 암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큽니다.)

흡연과 관련된 암 가운데 많은 것이 특히 입, 혀, 인두, 식도, 위에 있어서 알콜 복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관계는 너무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므로 암 발생에 관한 통계 연구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영향을 구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에 방광암, 췌장암 발생이 커피 사용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미국의 수많은 제각기 다른 조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아직 확고 부동한 논리를 구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성의 가슴에 조직 응어리가 생기는 것도 커피 사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가슴에 응어리가 생기는 여성은 가슴에 암이 발생할 위험이 증진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응어리가 생기는 소수의 여성에게만 해당된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예비 조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관계를 좀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에서는 담배와 술을 금하는 이외에도 육류를 절제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 즉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서 질장암

“유방암의 위험은

만 25세 이전에 출산하여  
아기에게 모유를 먹임으로써  
줄어듭니다.”

과 직장암은 지나친 육류를 섭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의하면 섬유질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질장과 췌장암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과도한 체중의 여성에게서 늘어나고 있으며 동물의 지방질을 섭취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콜레스테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습니다.

유방암의 위험은 만 25세 이전에 출산하여 아기에게 모유를 먹임으로써 줄어듭니다. 그러나 현재는 25세 이전에 출산하여 모유를 먹이기보다는 유방암의 위험쪽을 택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 계통과 여러 매체에 의해서 작업 환경 및 외부 환경에서 오는 발암 물질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생활 방식과 사람의 건강한 내부 환경입니다.

암에 대한 투쟁은 벽에 부딪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인이 확인되고 있고 생존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미국 의과 대학의 암 분과 위원장인 스타트 박사는 솔트레이크시티의 말일성도 병원의 과장이며 국립 암 협회 및 미국 암 공동 위원회와 관련을 맺고 있다.

# 육체적인 율법으로 축복받은 주님의 백성

로이 더블류 목사

**말** 일성도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제자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즉, 주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주님을 대표하였 듯이 오늘날 저들이 주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하여 고대의 성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졌던 진리가 훨씬 더 분명히 밝혀지곤 했습니다. 그 한 예로 1833년 2월 27일에 주어진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계시를 들 수 있습니다.

영감받은 신자들은 항상 영원한 구원에 관한 지식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복지를 위한 율법도 아울러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계시를 주기 전 주님은 세상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내게 있어서 만물은 영적이니라. 어느 때에도 결코 나는 속세에 관한 율법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나의 계명은 영적인 까닭으로……”(교성 29 : 34-35)

이스라엘인에게 어떤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이외의 또 한 예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관한 사연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로 잡혀 있는 동안 “왕궁의

육류”나 바빌로니아의 술 대신에 곡식과 씨앗류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도록 허락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다른 포로보다 건강했으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다니엘 1 : 17) 것입니다.

현대의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적 및 영적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더하여 적합한 음식을 먹고 해로운 것을 금하면 보상이 옵니다.

교리와 성약 89편 2절에는 “인사로 보내는 말이요, 계명이나 강제로 하는 말이 아니니 계시와 지혜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라.”(교성 89 : 2)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첫 구절 말씀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는 이것이 계명이며 필수 요건이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이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1921년부터 1952년까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었던 존 에이 윌소우 장로는 초기 성도들이 특히 교회가 서부로 이주한 뒤의 어려운 생활 여건이 한 대답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무렵의 정착 시기에 일반적으로 식



품은 풍부했으나 그 종류는 다양하지 못했습니다. 육류가 대부분이었으며 곡식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극히 적었습니다. 기운을 돌기 위하여 취기에 젖는 일은 거의 또는 전혀 없었으며 썩은 담배였던 담배와 커피, 차에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신의 피로움으로부터 영구적인 구원을 주지 못했으며 이 피로움은 대부분이 올바른 생리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스미스, 진리를 찾는 이, 하나님의 예언자, 북크래프트사, 1951년 198페이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적어도 계명이나 강제로가 아닌 상태로 지혜의 말씀이 당시에 주어진 이유는 분명히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시에 이것이 계명으로 주어졌으면 이 해로운 것을 사용하는 습관이 배인 사람은 모두 정죄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들을 법 앞에 세우기 전에 그것을 극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회 보고, 1913년 10월, 14페이지)

그런가 하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1846년부터 1869년까지 봉사한 에즈라 티 벤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가 지혜의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으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이 이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그의 보시기에 기쁘다고 말씀하시며 계명이나 강제로가 아닌 상태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집 11: 367, 1867년 4월 7일)

브리감 영 대관장은 그의 임기 동안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호소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식욕이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식욕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정죄받는 한이 있더라도 담배를 피워야겠다.’ 또는 ‘정죄받더라도 차를 한 잔 마셔야겠다.’ 또는 ‘이 일로 지옥으로 가는 한이 있어도 이것 또는 저것을 먹겠다.’고 합니까?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멋대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해드리는 한이 있어도 제 식욕대로 실컷 먹고 즐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에 귀기울이십시오, 성령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나쁜 것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식욕, 성격, 전체 인간에 대하여 너는 내가 행하는 대로 해야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대 지휘관이고 장군이다. 나는 너를 복종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집, 9:257, 1862년 3월 16일)

수년 뒤에 두 명의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은 연차 대회에서 영 대관장께서 지혜의 말씀의 계시를 계명으로 선포한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브리감 영 이세, PCSS56F8, 제 36과 참고자료, 프란시스 엠 라이먼, 대회 보고, 1908년 10월, 55페이지.)

지혜의 말씀은 이 계시가 주어진 때로부터 모든 교회 회원이 그대로 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명이나 강제로 하는 말이 아니니”라는 말이 그 초기에 지

해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계시의 영감받은 소개말에서 이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계시와 지혜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다. 말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에게 현세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시와 뜻을 보이시는 것이니라……”

“성도 혹은 성도라 불리울 수 있는 자로서 연약한 자와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연약한 자의 능력에도 감당해 낼 수 있는 약속이 따르는 원칙으로 주는 것이니라.” (교성 89 : 2, 3)

오래 묵은 습관을 그만 두는 것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계명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열심히 이 계명에 따라 생활한 충실한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처럼 충만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구원(건강, 금전, 절약……등)과 영적인 구원(“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은 순종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계명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나더러 주어 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 : 21)

제 7대 대관장인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1918-1945)은 임기 동안에 교회 회원들이 이 “말일에 있어서 모든 성도에게 현세적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지시와 뜻” (교성 89 : 2)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주 이 계시가 계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에 존 테일러 장로가 브

리감영 대관장의 뒤를 이어 교회 대관장이 되었을 때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교회 회원이 받아들이도록 연차 대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두 경전에서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첨가하였으며 대관장단에서는 이것을 교회 회원이 승인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대회에서 발표할 때 회원들에게 순종할 의무를 주는 이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과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또한 한 백성으로, 한 교회로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일지 기록사 1880년 10월 10일)

주님께서는 과거에 그의 백성에게 자비로우셨으나 수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헌신적인 부모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수준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이것은 충실한 성도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일성도는 영적인 구원 뿐 아니라 세상적인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 술, 담배, 차, 커피 및 해로운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백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녀를 열국으로부터 불러 모으시는 말일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하여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생활에 의하여 알려지리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와 나의 말이니라” (에스겔 36 : 23)

독시 형제는 교회 협의 검토의 책임자로서 “오늘의 지혜의 말씀”의 저자이며 유타주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신학 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



# 지혜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움베르토 폰트로소르치



저는 어느 일요일에 담배와 늘 하는 술 한 병을 갖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초인종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나는 끈색 옷을 입은 두 젊은이가 선교사라는 명패를 가슴에 붙이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인도한 방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진동했으나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저의 믿음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잠시 멈추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침례는 받았으나 한번도 교회에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종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저의 양심을 믿었으며 이웃에게 정직해야 할 필요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는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요셉 스미스와 회복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자 마치 그들의 말을 이미 전에 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온 몸을 엄습했으며 이 젊은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나는 울기 시작했으며 제 가슴이 벅차서 터지는 것 같았습

니다.

우리는 다음 화요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며 그 동안 나의 인생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20세가 될 때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위기에 빠져들었으며 아내의 병과 먼 병원에서 2년 동안 요양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술로 마음을 달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 매일 70내지 100개의 담배를 피웠습니다. 저의 육체가 점점 쇠퇴해져서 스스로도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알콜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했으나 의사들이 도움을 주지 못했으므로 더욱 절망했습니다. 나에게 좋은 직장과 훌륭한 가족이 있었으나 먼저 이런 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절망으로 점점 자포자기하여 술에 탐닉했으며 한 번은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 했으나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소펜슨 장로와

워터맨 장로가 나의 생활에 뛰어든 것이  
니다.

그들이 두번째 왔을 때 두 선교사는 내  
가 잘 모르지만 참되다고 느껴지는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습  
니다. 그들이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이  
야기했을 때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  
는 것을 느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  
해서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는데 도  
대체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  
고 그들이 가르친 것들을 믿는지 또한 주  
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습  
니다.

그들은 “좋습니다. 우리 말을 들으신  
다면 우리가 도와 드리겠으며 주님이 그  
문제를 이겨 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된다면 얼  
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  
습니다. 그들의 열성이 나를 기쁨과 소  
망과 신앙으로 가득 차게 했으며 정말 마  
음으로부터 그들의 지도를 따르고 싶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점점  
더 자신이 생겼으며 그날 아침부터 새로  
태어난 용기에 힘입어 다시는 코냑을 마  
시지 않겠다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나는  
굉장한 고통을 받았으나 그 규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도움과 겸손으  
로 인하여 차츰 담배의 양과 술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으나  
주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도와 주시는 것  
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하며 이 시련을 겪는 데 있어서  
외로이 혼자 있지 않으리라고 느꼈습  
니다.

1개월 반이 지난 다음 이런 악을 극복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유로워지자

1977년 12월 28일에 아내와 함께 침례반  
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몸과 영이 새롭게 되어 침례탕에서 나왔  
으며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우  
리의 죄를 잊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  
니다. 나는 옛날의 자신을 버리고 신뢰감  
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시  
태어난 자신을 보았을 때의 기쁨을 설명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명하시  
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결심으로 주님  
께 감사를 보이는 가운데 잃어버린 시간  
을 모두 보상하고 싶은 무한한 열의를 갖  
고 있습니다.

침례반은 후에 나의 건강은 점점 나아  
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침마다 굉장한 고  
통과 아픔을 느끼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참으로 고역이었습  
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고 나면, 저녁까지  
평온하게 일할 수 있었으며 저녁이 되면  
다시 고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던 어  
느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그때부터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  
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된 지 1년 후 우리는 신전  
에 갈 수 있었으며 아내와 세 딸이 함께  
인봉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합  
쳐진 가족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부름을 받는 축복을 받았으  
며,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  
다는 것을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건강과 힘을 얻으  
며 그 힘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

끈뜨로조르지 형제는 이태리의 밀란 스  
테이크의 밀란노 제1지부 지부장으로 일  
하고 있다.



# 축구와 지혜의 말씀

라파엘 댈턴 테이세이라 다 우나



**표**로 운동 선수의 생활은 대단히 격렬한 것이다. 연습, 훈련, 체력 단련, 시합에 따른 이곳저곳에서의 여행, 신문 기자와 청중들과의 만남, 그리고 경기를 잘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책임감 등. 교회 회원인 운동 선수들은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혹독한 선수 생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간증한다.

그런 한 사람이 브라질 국가 대표 축구팀의 선수이며 그의 팬들에게 티타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는 25살의 밀턴 케이로 다 페이세오이다. 티타는 그의 성공과 능력의 많은 부분이 지혜의 말씀을 지킨 덕택이라고 말한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침례를 받은 이후 열심히 지혜의 말씀의 원칙에 따랐습니다. 좋은 식사 습관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은 나의 뛰어난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최상의 신체적 컨디션을 갖는다는 것

은 여러 가지 기온과 기후, 여러 높이의 고도 조건에서 축구 시합을 가져야 하면서도 티타와 그의 동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연습과 훈련 중에 열중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항상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 중 하나다. 티타는 편안하게 그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며 왜 그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이나 흥차 커피를 마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결코 피하지 않는다.

제로 호라지의 기자인 루이스 지위 피레스는 이렇게 논평했다. “티타는 매너가 아주 좋으며 용모가 단정한 젊은이다. 그는 사람들을 항상 예의 바르게 대하며 항상 기꺼이 그의 종교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티타는 1958년 4월 1일에 밀턴 에잉리 키스 다 페이세오와 월스터 케이로쉬 다 페이세오 사이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카톨릭 신자였고 어머니는 결혼 전에 독실한 감리 교회 신자였다. 그 가족이 교회와 인연을 갖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남자 형제 중 한 사람인 월터 구메스 드 케이로쉬(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의 전 선교부장) 때문이었다.

11살 난 티타는 1969년에 그의 어머니

와 두 형제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의 스포츠에 대한 흥미는 축구에서 그 출구를 찾았으며 그는 교회와 학교의 시합에 참가했다. 축구 리틀 리그에서의 그의 활약은 "플라멩고" 클럽의 주의를 끌게 했으며 그는 리오 데 자네이로를 본거지로 한 그 팀에 계약을 맺었다. 그는 1979년 국가 대표팀에 선발되었다.

팬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선수인 티타가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 준 행동은 언론이 그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티타는 그의 명성을 자신의 출세에 이용하지 않고 그의 종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상파울루 신전에서 그의 결혼에 대해 그와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은 신전에서 결

혼하기에 합당하도록 특별한 표준에 따라 생활해야 했으며 영원한 성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광고를 사용했다. 그는 신문에서 말하기를 그 표준 속에 지혜의 말씀의 원칙이 있다고 했다.

리오 데 자네이로 앤더레이 스테이크 티준커 워드의 회원인 티타는 말하기를, 그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한 영원한 성약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계명을 지켜 살고 그가 접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며 선교사로 나갈 기회를 가지며 그의 직업적인 생활과 교회의 표준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나는 어떻게 루이자 비탈로니 커피마시는 습관을 극복했는가





내가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게 된 지  
 도 5년이나 되며 간혹 커피 냄새를  
 맡게 되면 내가 지금은 믿을 수 없을 만  
 큼 엄청난 양의 커피를 마시던 그때가 생  
 작난다. 나는 어머니로서 주부로서 요구  
 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내 힘을  
 북돋워 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한 잔의 커피로 내 하루를 시  
 작하곤 했었다. 그 첫잔을 마시고 난 다  
 음에는 어머니나 친구가 방문했다든지  
 기운을 차리기 위해서 혹은 휴식을 취하  
 는 데 도움이 되니까 커피 한 잔이 필요  
 하다는가 하는 구실이 필요치 않게 되었  
 다. 한 잔, 또 한 잔 그리고 또 한 잔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루가 커피  
 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  
 던 것처럼 커피로 끝나야 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논리적으로 커피는 흥분제  
 라는 것을 알면서——이것이 내가 낮 동  
 안 커피를 마신 이유가 아니었던가——  
 나는 잠자리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  
 으면 잠들 수 없는 것으로 “알았다.” 너  
 무 과다한 커피가 내 건강을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느날 두 선교사가 대문을 두드려 내  
 게 복음을 소개하기까지 나는 그러한 사  
 실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기  
 께이 그들의 메시지와 침례를 받게 하려  
 는 노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이  
 설명하기를 내가 침례를 받으려면 지혜  
 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  
 리고 그것은 더 이상 커피를 마시지 않아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들의 제안에 전적으  
 로 놀라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  
 이 시도하는 대로 따를 준비를 했다. 놀  
 란 사람들은 내 남편과 딸들이었다. 커피  
 가 내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며 내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  
 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  
 난 것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서 나는 그 모든 계율을 받아들였다. 그  
 령계 했을 때 나는 어떤 평온이 내 생활  
 속에 깃드는 것을 느꼈으며 주님이 그의  
 계명을 지켜 살도록 나를 도우신다는 것  
 을 알았다.

물론, 커피마시기를 중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 신체가 너무나  
 그것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피를  
 끊고 몇 주 동안 나는 멍한 가운데서 지  
 냈다. 다리가 흔들리고 팔엔 기운이 없  
 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커피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다. 커피 주  
 전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놀라운 감정이었  
 으며 여러 번 나는 주님의 도움과 권능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고 있는 자신을 발견  
 하였다. 선교사들이 정규적으로 방문하  
 여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보살펴 주었으  
 며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주의길  
 게 살피던 내 가족들도 내가 얼마나 좋은  
 기분인지 말하는 것을 듣고 번번히 놀라  
 와했다.

오늘 나는 행복했던 5년간을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부름에 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간혹 드문 경우에, 내가  
 신체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에는 나의 영  
 이 항상 더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으  
 며 내게 원기를 되찾도록 해주었다. 내가  
 지혜의 말씀과 그것을 내 생애에 가져다  
 준 복음에 대해 간증을 갖고 있는 것은 하  
 나도 놀랄 일이 아니다. \*

비탈로니 자매는 이탈리아 미라 스테이크  
 의 상호부조회 회장이다.

# 우리의 간증을 기억함

고드프레도 에이치 에스케라

나는 어떤 회원들이 비활동되는 이유를 꼼꼼히 생각해 보면서 사람들이 “망각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이 망각한다는 말을 단순히 어떤 것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진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의 강력한 접촉을 잃는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강렬함을 단지 되찾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완전히 활동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아직 어른이 아닌 14살의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소년은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가 들어가려 하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는 서로 다른 의견과 논쟁 틈에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성경을 읽고 있던 그는 이러한 구절을 읽게 되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

이 짧은 구절이 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그에게 와 닿아 그는 권고하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기로 작정하였다. 아버지



와 아들이 빛 기둥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는 간증이 값진 진주에 그 자신의 말로 기록되어 있다. (요셉 스미스서 2:14-19 참조)

물론 그 소년은 회복된 교회의 첫번째 대관장이신 요셉 스미스이다.

그러한 경험을 한 어린 요셉이 성스러운 언덕에서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있으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개종자들의 교회이다. 간증을 가진 모든 교회 회원들은 그 간증을 성령을 통하여 받는다. 많은 개종자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에 관한 간증을 주는 어떤 영적인 경험을 갖는다. 그





것은 아마 어린 요셉에게와 같은 극적인 시현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모세가 바라본 불타는 떨기 나무처럼 감동적이거나 불문경의 성스러운 기원을 증언하는 세 사람의 증인에게 나타난 모로나이 천사의 모습처럼 강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어느 쪽이든간에 모든 개종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간증을 얻을 때 선한 느낌, 사랑의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나는 이 교회 회원이 된 지 6년 남짓 된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 피곤에 지친 때가 있었다. 의기 소침해있던 때도 있었다. 좌절과 불충분함을 느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교회가 오늘날 지상에서의 그의 진실한 교회이며 물론 경이 진실로 그에게서 왔으며 요셉 스미스는 그의 예언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7년도 더 된 그밤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간구하였고 내 물음은 응답되었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기억할 때 나는 나의 성약을 기억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며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한다. 나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나를 기억한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게 날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내가 또 한번 그 증언을 받아들임으로써 진실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할 때는 다시금 새로워진다. 나는 새 힘과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며 내 간증을 증가시킨다. 나는 여기 지상에서 그의 왕국을 세우는 데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충분히 실감하게 된다.

우리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침례의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며 주님과 어떤 성약을 맺게 된다. 그 중에 이러한 것이 있다: 당신 이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모두는 성취해야 할 우리 자신의 목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약속이 있다. 우리의 성약을 기억하도록 하자.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되살리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얻은 간증을 기억하고 필요하면 자주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갖도록 하자 \*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소년단 아영에서 재미있었던 활동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말씀이 맞았어요. 형제님의 말씀은 정말 지루했어요."



아차, 내 아내! 내 아내가 어디있지?



"노아! 큰일났어요. 나무를 파먹는 벌레를 매어 놓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과 힘을 주도독이 음식을 축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만 어머니께서 사위를 보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Elaine  
Kammann

## 멋진 모험

엘레인 캐넌





“나는 청년을 사랑합니다.”

청년회 본부 회장인  
 엘레인 캐넌 자매는 의사 전달 분야의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재질을 타고난 작가이며  
 편집자이자 연설가인 그녀는  
 읽거나 듣는 사람들과  
 자기 심정을 나눌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  
 다음 글은 캐넌 자매님의 책과 연설,  
 인터뷰 등에서 발췌한 것이다.  
 의사 전달의 석사인  
 그 자신의 말을 통해서 보다  
 그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있겠는가?

“인생은 하나의 멋진 모험입니다.  
 그것을 깊이 경험해 보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당신의 일기에 그것을 기  
 록하십시오. 인생을 철저히 살아 보십시  
 오.”

엘레인 캐넌 자매는 어떻게 그 자신의  
 권고에 따라 살 수 있나를 잘 알고 있다.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  
 런 충실하고 풍요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  
 것을 그의 일기에 기록했다. 사실 그녀  
 의 일기는 미래의 예언적인 내용으로 불  
 리고 있다. 그녀가 11살이었을 때 다음  
 과 같이 적었다. “나는 내가 젊은이들과  
 일하는 어른이 되었을 때 젊다는 것이 어  
 떤 것으로 느껴지는가를 기억하기 위하  
 여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한다는 것이



캐년 자매님의 많은 능력 중 가장 뛰어난 능력이다. 그녀는 동료들의 슬픔, 걱정 그리고 곤란한 문제 등을 알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안정을 주는 드문 재질을 갖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절망적으로 그녀를 필요로 할 때, 사심없고 인정많은 도움을 보상받으려는 생각없이 그들에게 주었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 인생에서의 위기를 극복하는 동안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마음속으로 그들을 데리고오곤 했다. 그녀는 주위에 있는 이들의 나타내지 않는 걱정을 알아내는 데 무서운 능력을 보여 주곤 했다. 그녀의 현재의 부름은 사랑과 통찰력이라는 이 재능을 끊임 없이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이 소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을 사랑함에 있어 나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저들에게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듣고 있든지간에.’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때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나는 느낍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신앙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에 대한 캐년 자매님의 가장 큰 희망은 그들이 그들의 구세주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말한 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실한 것입니다. 대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말 우리를 돕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젊은이들의 걱정 중 어느 하나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당면 과제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당신 스스로 발전해 내어야만 합니다’ 라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실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단 한 가지의 것이 젊은 남녀로 하여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게 합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주님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든지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머니가 집에 계시지 않고, 수줍음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의식이 거의 사라져 버린 때에도 그것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최근 뉴욕에서 내가 두팔로 감싸던 그 낙심한 작은 소녀에게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녀가 하나님께서 열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돌연 그녀 자신을 소중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년 자매님은 수천 명의 청년들과 성인 지도자들을 맡고 있는 바쁜 역원이다. 그녀는 미국 여성 협회와 국제 여성 협회의 임원이다.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녀는 수만 킬로미터를 여행하였다.

그녀는 청년들을 방문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두루 여행할 때, 되도록이면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어느 나라에 가게 되면 나는 젊은이들이 있는 곳, 즉 젊은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학교나 집에서 어떻게 교회로 갈까요? 그러므로 나는 지도자들에게 나를 그 길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요. 독일의 어느 지방에서는 젊은이들이 고등 학교에서 와드 행사를 위해 지나가는 길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그 길은 마을의 가장 나쁜 지역—온갖 음화들이 있는 곳을 바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그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도덕적 무장을 강하게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캐년 자매님의 가장 큰 사랑은 그 자신의 젊은 시절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그녀 자신의 말로 그의 어린 시절을 형성하게 된 어떤 사건을 들어 본다.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은 내 어린 시절에 하나의 움직이는 힘이었던 외딴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나는 내 침실의 창 밖

으로 그 산을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가족들과, 교회 사람들과,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 불모의 산꼭대기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모세와 같이 그 산 위에 올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 욕망에 휩쓸려—나는 혼자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나는 16살이었고, 이날 그 산 위에 내가 혼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유쾌한 일이었습니다. 해를 무릅, 정상의 길을 오르고 있었을 때는 가장 눈부신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매료되어서 나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집들과 해가 뜨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속의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연장인 것처럼 가슴이 아리도록 친밀한 그 광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집에서 친구의 집까지, 모퉁이의 교회까지, 또 언덕 아래의 학교까지, 그리고 이웃 가게까지 내 생활의 길목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침내 나는 우리집, 내 가장 감미로운 시절의 광경, 나의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장소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의 당황하고 가슴이 비틀리는 기분으로 나는 유년기가 내 손아귀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어디에도 내 생애 영향을 미친 누군가가 있습니다. 16살에 나는 그들—부모, 학교 친구들, 가게 점원, 교회 지도자—의 총체였습니다. 내 가슴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나는 치려야 할 빛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했습니



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내가 그에게로 마음을 돌리자 내 영혼은 그가 살아 계시며 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 위에 앉아 있는 조그만 한 사람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신다는 깨달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와 보였고 나는 살아 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날 그녀가 한 맹세는 지금까지도 그의 생활에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그녀는 “내 기도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결코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녀가 또한 그 이전보다 더욱 그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준 문학에 대한 사랑을 발견한 것도 그 언덕에서였다.

“내가 열 몇 살쯤이었던 어느날 한 남자 아이가 내게 페이지가 찢어지고 헤어지고 더러워진,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영국 시집 한 권을 주었습니다. 한 귀전에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인간의 가능성은 인간의 한계를 능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그날 내가 그것을 읽고, 수십 년 전에 영국의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그렇게 썼고 나는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해석하여 내 자아를 발견함에 희망찬 이상주의로, 확고한 철학으로 적용시켰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윌리엄 워즈워드, 헨리 워즈워드 롱펠로우, 제프리 초오서가 포함되어 있는 헤어진 가죽 겹질의 그 책은 소망과 성취의 이론을 이해하고 있던 이 소년에 의해 내게 전달되었습니다. 공공 도서관이 보기 싫게 딱딱하고 실질적으로 장정된 근샤스 디킨슨,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과 왈도 에머슨

의 옛세이집 ‘우정’을 내게 제공해 주었다.

“나는 이 모든 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소년과 내가, 우리가 읽은 것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물결과 같이 와 닿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기분을 들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책을 읽는 중 우리는 마음을 뻗치고 서로 자기가 다시 표현하여 그것을 말해 보려고 애썼으며 그러는 가운데 짧은 한 여름 동안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고 평생 동안의 우정을 맺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캐년 자매님은 지적인 이해 속에 성장하면서 영적으로 아울러 성숙하여졌다:

“내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것은 늦은 봄이었습니다. 계절은 절정이었고 그리고 나도 최고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였습니다. 몇 가지 회개를 했고, 얼마간 금식하고 기도했으며 나의 온 가족과 내 특별한 남자 친구와 그것의 의미에 관해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나는 존스 축복사님과 약속한 그 전날 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도록 해야겠다는 강한 필요성을 느꼈으며 여치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잠시 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내가 대단히 어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다시 한번 내 운명의 끌어당김을 느꼈다. 처음에, 일종의 자의식을 느끼며 나는 어릴 때 주했던 것처럼 따끔따끔한 잔디 위에 등을 대고 길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키고 얼굴을 하늘로 향해 들렀습니다. 나는 하늘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주 속으로 떠올러지는 느낌으로 마음이 뻗어나갔으며 자기 분석적인 경험이 내게 왔습니다—거의 하나님의 존재로까지 가까워지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내 가슴을 쿵쿵 치게 했습니다. 나는 내 기도가 하늘의 집에 닿은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작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성령의 증명이 눈물이나도록 나를 흥분시켰습니다.” 또한,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에 그녀 부모의 영향이 캐년 자매님에게는 따뜻하고 소중한 기억이 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는 내가 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놀라와하셨어요. 여러분은 그것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얼마만한 신뢰감을 심어 주었는지 상상할 수 있겠지요! 사랑, 사랑, 사랑이 있었어요. 그는 그의 사랑을 낳은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셨어요. 나는 대단히 일찍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여졌어요. 왜냐하면 나는 지상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닮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빠는 기도할 때 항상 길가의 아래 윗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들면서 축복하셨어요. 때때로 나는 의례적인 말이 익숙치 않아서, 또한 우리의 일상 대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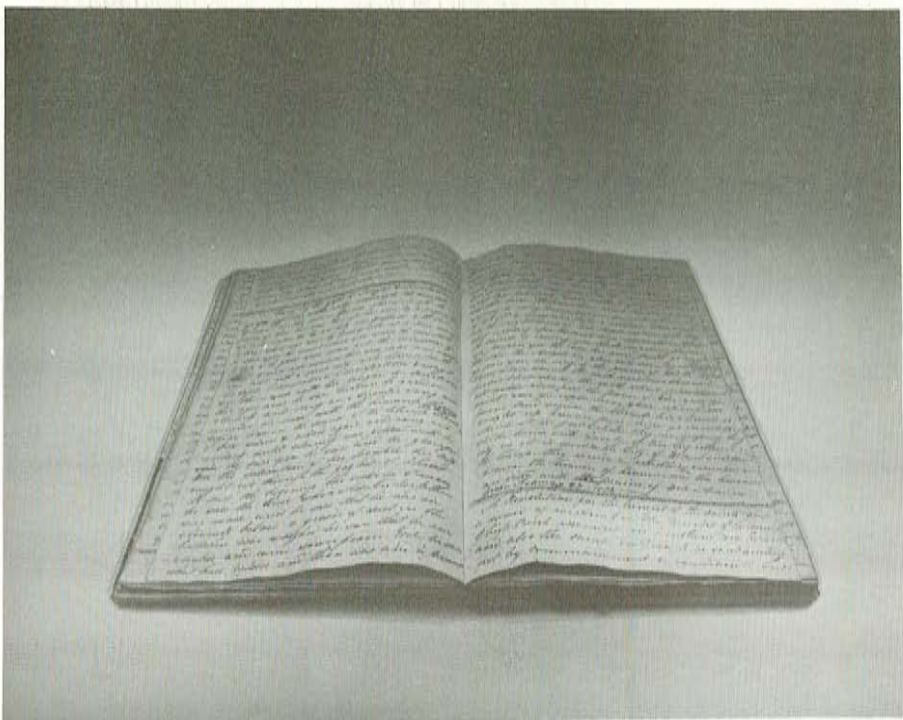
“어느날 밤 그가 기도하실 때 나는 감히 하늘이 노하실 일을 하여 아빠의 얼굴을 훑쳐보았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는 울고 계셨거든요! 그가 하시던 말씀은 의례적인 것이었으나 그의 볼에 흘러 내리던 눈물이 그의 가슴속의 부드러움을 말해 주고 있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교회 일에 대단히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전념하고, 헌신하고, 자제력이 있었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정돈되어 있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쓰던 두 마디의 말은 의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녀는 이해가 빠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쑥하시기를 ‘사전에서 찾아보자꾸나’ 혹은 ‘백과 사전을 가져올게’ 혹은 ‘그것에 대해 경전은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들 대부분과 같이 나는 교회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 내 스스로 찾아보고자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믿고 계시고 내게 순종하게 하시는 이유만으로는 나대로의 확신을 정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에 나는 많은 상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제제를 받으며 이후에 독립적 상황에 도달하게 된 것이 무서운 죄와 비탄을 피해서 이겨내야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집의 자비로움과 임무 부여의 조화가 대단히 훌륭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구세주의 생애에서도 발견합니다. 그는 그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동시에 커다란 자비로움 서하셨습니다. 인생의 이 두 가지 면은 나의 부모의 모범 속에 함께 담겨 있었고 내게는 자연스럽고 의미있는 배움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캐년 자매님이 결혼하는 날이 되었을 때 그 결혼에서 느낀 사랑은 그녀의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사랑이 자연적으로 연장된 것 같았다:



“내 어머니는 내가 옳은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주셨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내 남편 짐은 내 신념을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현재의 나로 되는 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나에게 큰 축복입니다. 나는 지도자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가 다르며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작가로서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캐넌 자매님은 그의 책에서 인생의 변화하는 행운을 상징하여 계절을 자주 사용해 왔다. 겨울에 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

“겨울은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첫눈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겨울은 가슴이 비탄에 잠길 때 계절에 관계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서로에게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어린 엘레인은 야구 경기장에서 이른 겨울을 맞이한 적이 있었다.

“아무도 제일 마지막으로 선발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야구 게임을 할 때 여러분이 혼자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편에 들게 된다면 그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굴욕과 거부, 비탄에 싸인 겨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게 한 학년 내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구 게임은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일년 동안 운동장이 좀 말랐다 하면 우리는 야구를 했습니다.

“시합을 할 때마다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편을 갈라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는 정규 선수들 가운데서 나는 언제나 제일 마지막으로 뽑혔습니다.”

모욕적인 상황에서 멀리 달아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지만 엘레인은 참아 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뽑히기를 계속했지만 어쨌든 그녀는 끝까지 버텼다. 다행히도 야구가 그녀의 유일한 꿈은 아니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떤 웅변 선생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운 좋게도 나의 부친은 좋은 직장을 갖고 계셨으므로 그러한 종류의 지도를 내게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멋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6학년 중에서 한 사람이 템플스퀘어의 대 태버나클에서 학교 축제 행사로 뽑혀 연설하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뽑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실망한 엘레인은 그녀의 목소리가 템플스퀘어의 대 태버나클 안에서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방송을 타고 울려 퍼지리라는 사실을 알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미래를 알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가 그 당시를 처리했을까?

“먼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우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단지 그들의 친

구들을 선택할 따름이다.’라고. 그러나 나는 그런 불만을 극복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었으므로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가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녀는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하였듯이 그의 심정을 쏟아 놓고 응답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중·고등 학교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캐년 자매님은 어떤 지위나 특권, 권력이나 인기와 같은 이기적인 목적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은 차츰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것들은 애초에는 꿈도 꾸지 않았던 언덕을 향하여 때로 낙심하며 오르게 하여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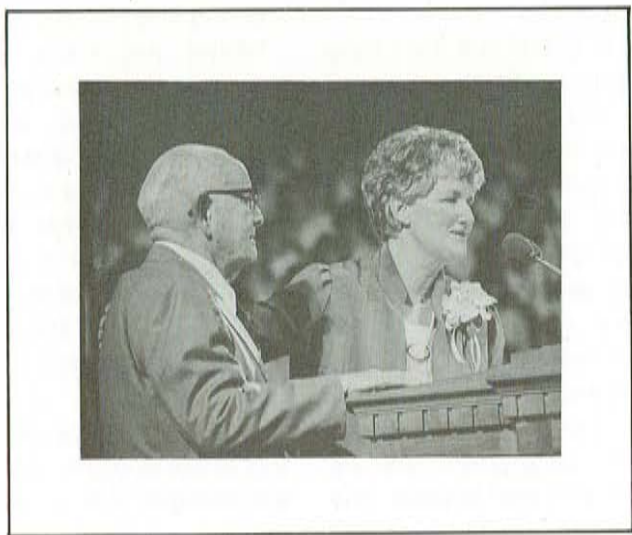
“이것이 내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것을 할 때, 다른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경험성이 자연적으로 내 생애에 주어지는 다른 기회들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개인적인 실망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고등 학교의 여학생 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되었습니다. 나는 그 낙선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떠나게 할 것처럼 느꼈으므로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 실망을 느끼는 대신 선생님 한 분과 내게 이긴 그 아이를 위해 멋진 파티를 계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패배하여 정말 상처를 받았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함께

을 때 오히려 여러분은 봉사의 길을 밟을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하여 여러분이 원하던 명예나 보상이나 일자리를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단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을 위한 봉사의 손을 내밀고 자신의 아픔을 떨쳐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녀 생애의 일찍부터 캐년 자매님은 그녀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신의 척도를 세워 놓았다. 그녀의 가장 빈번한 의문은 "나는 그리스도에 보다 닮아 지려는 사람으로서 있는가?" 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캐년 자매님은 인생의 시련이 선거에

서 낙선하거나 야구 게임에서 잘못한다 는 데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다. 때로 너무나 휘몰아쳐 참기에 불가능할 것같이 여겨지는 강풍도 분다. 그러나 상실과 시련은 흔히 사람에게 확실한 힘으로 신념을 일으켜 준다.

"내 인생의 가장 의미있는 순간의 하나는 내 며느리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의 믿음으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프고 고통한 두 팔을 그의 젊은 아내의 관 위에 얹고 서서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이 충족되었으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슬픔의 계곡으로부터 올라가야 하는 길은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는 복음의 원칙을 택했으며 그것을 적용시켰습니다. 그 원칙의 적용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생애에 접하게 되는 어떤 과제나 실망이라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방법대로 무슨 일을 시도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던지 다 옳은 것입니다.

“인생을 헤쳐 나가는 비밀은 우리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권능과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성령의 격려를 느끼지 못한다면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때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착실한 기반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스러운 지식에 도달하는 것인가?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는 구세주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해 가장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와 같은 수준에 있거나 내 자신을 그들의 수준에 놓아 생각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단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머리를 정신적으로 숙이고 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령을 내가 함께 지닌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저지르는 가장 나쁜 잘못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내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에 의존하거나 내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기분을 갖는 것임을 압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우리가 깨닫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대단히 많은 참을성을

보여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로 우리는 슬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에게서 워싱턴 주의 시애틀에 작은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매일 오는 비가 해나 별들을 대부분의 시간,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꼬마는 정말 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별은 겨울 밤에 더욱 영롱합니다. 나는 우리가 맑은 날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을 때 이 작은 소녀에게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에 가득 찬 것을 처음 본 그 아이의 놀라움에 나는 미소지었습니다. ‘저 별은 내가 보지 못한 때라도 어두워질 때면 언제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애는 물었습니다. 나는 구름 뒤에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별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어둠도 나쁘지는 않지, 그렇지?”

“인생에도 그것이 적용되지 않겠나?”  
캐년 자매님의 경험은 그녀를 지혜롭게 했고 젊은이들의 인정받는 조언자가 되게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녀가 말하는 메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가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고 염려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한동안, 순진한 어린이로서, 침례로부터 새로와져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적당한 복종으로 당분간은 부모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가족들의 모임에서 그것을 외우거나 세미나리나 주일학교에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기도할 때 팔을 잡고 마음 가운데 고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야기 시간에 다윗과 같은 사람의 힘에 놀라와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잘됩니다. 당분간은.

“그러면 어느날 여러분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은 커다란 세상에 나와 있고 여러분 혼자서 생각해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때, 행동해야 할 때, 이제 예언자나 부모나 누구에게도 떠맡겨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시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방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험입니다.

다윗의 첫번째 문제는 단지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그의 이상이 여러분의 것만큼 높지 않은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다. 곧 우리는 신한 시도만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타인의 힘과 의지에 매달리려는 것에서 우리의 손을 하나님과 잡고 스스로의 능력을 처리하는 태도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며, 그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은 항상 가족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여러분은 가족의 표준을 지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사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말하는 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태도를 따라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절은 가족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자라나자 주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라도 이 하늘의 가족 중 우두머리이신 하나님은 그의 위대함, 보호하시는 무한한 지혜와 지고한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여기 지상에서 배회하고 경험하고 배우는 동안 그는 보고 계십니다. 그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언젠가 집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도 일종의 내부적인 열망과 고독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종의 영원한 항수병—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막연한 기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내리는 결정과 선택에 차이를 나타내게 함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만약 주님의 영을 우리들 속에 지니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성공이란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내 개인적인 소망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거나 내 개인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참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됩니다. 나는 감미로운 영감을 느낄 때 즉시 감사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 부러지지 않는 빛자루

비벌리 스윌들로우 브라운

옛날에 어느 조그만한 마을에 양복을 만드는 나이 많은 노인과 세 아들인 유다, 야린, 이삭이 살고 있었다.

어느날 노인은 아들 셋을 한꺼번에 불렀다. “얘들아, 나는 열심히 일해 왔어. 난 이제 올리브나무 그늘에서 쉬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이제 가게는 너희에게 물려 주려고 한다.”

그러자 유다가 한 발짝 다가서며 “고마워요 아버지. 우린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해요.”

노인은 미소지으면서 “우리 아들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을 본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하고 말하였다.

야린이 천을 집어 들고는 “저는 더자인을 잘하지요.”하고 열을 올렸다.

“저는 옷 본대로 재단을 잘해요.”하고 이삭이 기분이 좋아서 거들었다.

“저는 재단한 천 조각을 함께 잘 박지요.”하고 유다 역시 신이 나서 지껄었다.

“좋아, 신이 나서 노래가 나오는군.”



하면서 노인은 눈빛이 빛났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유다가 문을 열었다. 심부름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다에게 부친께 전하라며서 편지를 건네 주었다. “람비의 부인이 전하는 소식입니다.”하고 말하며 심부름하는 사람은 절을 하고 나서 떠났다.

유다는 편지를 노인에게 전했다. 노인은 재빨리 편지를 뜯어 보고 큰 소리로 읽었다.

다음주 초에 내 딸이 회당의 역원인 갠서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갠서는 회당 고위 인사의 딸과 사촌입니다. 이번 금요일 해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오십 세겔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레베친(람비의 부인)

“우리에게 행운의 때가 왔구나!” 야린이 말하였다.

“우리 이름이 성지 예루살렘 전체에 퍼지게 될거야!” 이삭이 외쳤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옷을 살려고 할거야!” 유다가 좋아서 외쳤습니다. “빨리 드레스를 만들자. 우린 겨우 이틀밖에 시간이 없어.”

노인이 한 발짝 나서서는 “나는 천을 더 사러 시장에 가야겠다. 내일 돌아올게. 너희들이 잘해야 돼. 셋이 함께 잘할 걸로 믿는다.”하고는 떠났다.

야린은 종이와 깃털펜을 집어 들고 자기는 옷 본을 만드니까 상은 자기가 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재빠르게 스케치를 하였다.

“그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렴.”하고



유다가 말하였다.

야린은 등 뒤에 종이를 숨기고는 “안 패. 상이 내 것이라고 동의해야 주겠어.”라고 대답하였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하고 이삭이 소리질렀다. 상은 내가 가져야 해. 옷 본데로 정확하게 재단하는 사람은 나야.”

“기다려! 나는 질이 좋은 하얀 천을 정교하게 박는 것이니까, 상은 내꺼야!” 하고 유다가 대들었다.

삼형제는 하루 종일과 밤, 그리고 이틀날 아침까지 싸웠다. 노인이 돌아왔을 때 아들들의 성난 목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냐?”하고 물었다.

화가 나서 세 아들은 각각 자기가 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노인은 슬프게

머리를 흔들고는 “바로 이 시각에 드레스는 시작도 못한 상태인데 너희는 모두 상받을 생각만 하는구나.”

노인은 문간에서 빗자루를 들고는 작은 나뭇 가지 세 개를 꺾어왔다. “야린, 이 나뭇 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겠니?”

“물론이지요, 아버지. 하면서 야린은 나뭇 가지를 부러뜨렸다.

“이삭 너도 똑같이 할 수 있겠니?”하고 노인이 묻자 “물론이지요.”하고는 나뭇 가지를 둘로 부러뜨리고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하고 물었다.

노인은 웃음을 띄며 빗자루를 집어 들었다. “자, 이제는 부러진 나뭇 가지를 모두 함께 묶어서 부러뜨려 보아라.”

세 아들이 각각 순서를 바꾸어 해보았으나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다.





“정말로 혼자 서 있는 것이 영광과 부가 더 있는 것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묶여진 나뭇 가지와 같이 함께 일하는 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야.” 하고 노인은 부드럽게 말하였다.

세 아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서로 돌아보았다.

세 형제는 밤새도록 함께 일하고 그 다음날도 일해서 금요일 마감 시간까지 드레스를 완성하였다.

람비의 부인이 그 드레스를 보고는 대단히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옷을 더 좋아하였기 때문에 오십 세겔은 딴 사람에게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삼형제는 말이 없었다.

“너희들이 실망하고 있는 걸 알아. 하

지만 너희는 함께 대단히 좋은 옷을 만들었어. 아주 잘 만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사갈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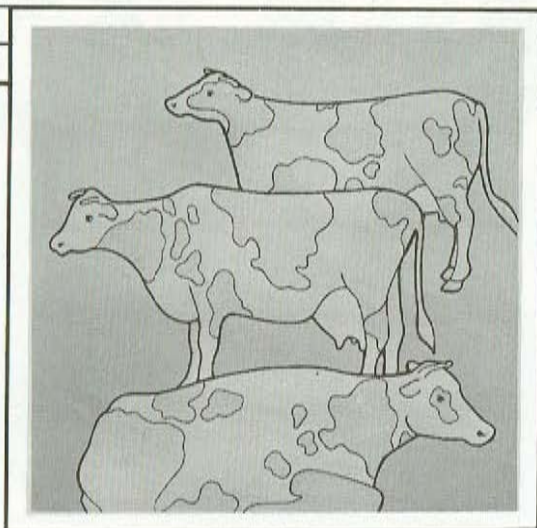
그 다음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양복점으로 몰려왔다.

그 중 하나가 회당 고위 인사의 딸이었다.

“아, 이것 봐. 정말 아름다운 디자인이군. 바느질이 정교하군. 재단이 잘된 걸 보니 나한테 잘 맞겠어.” 하면서 드레스를 가지고 싶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가 마음에 들어 그것을 사고는 여러 벌을 더 주문하였다. 그러자 그녀의 친구들과 딴 사람들도 주문을 하여 삼형제는 오십 세겔의 여러 배를 벌었다. \*

# 친구가 친구에게



철심인 제일 정원회 로렌 시 던 장로와의 개인적인 인터뷰(제넷 피터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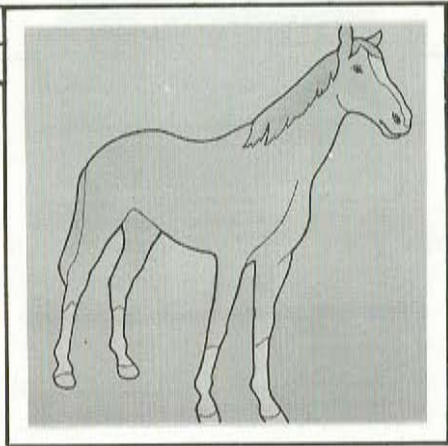
나는 유타주 투엘라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만드셨습니다. 젊어서 나는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집 젖소를 돌보는 일을 도와야 했었습니다. 내 동생 조울과 나는 우리집 젖소를 돌보는 일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우리 이웃집의 젖소도 모아서는 마을 끝에 있는 들판으로 데리고 가서 풀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나중에 동생과 나는 마을 끝에 있는 우리 집 소유의 8헥타아르짜리 농장에서 일했

습니다. 우리는 십대의 소년이었는데 부친은 우리가 바쁘게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느날 이웃 사람이 우리가 농장에서 잘못하고 있는 일을 열거하여 가져와서는 부친께 보여 주었습니다.

그 이웃이 그가 적은 목록을 큰 소리로 읽기를 끝마쳤을 때 부친은 의자에서 뒤로 물러나 앉고는 그 이웃 사람을 쳐다보면서 “좋아요 짐, 당신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나는 젖소가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중이래요.”하고 대답하셨습니다.”





던 장로가 생후 육 개월 되었을 때 낚스라고 불리는 불독이 집에 왔는데 그는 평생 개와 말을 좋아하였습니다.

던 장로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자기 말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으며 말의 이름을 스모우키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십일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말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그건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멀리 말을 탄 적은 처음이었어요. 물론 안장이 없는 말을 탔지요.”하고 던 장로가 회상하였습니다.

소년 시절 던 장로는 스테이크 부장이었던 부친과 함께 와드나 지부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스테이크는 260평방 킬로미터의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대접을 잘 받았고 회원들은 우리를 위해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였으며 소년인 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회원들은 손님 대접을 잘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던 장로는 회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선생을 하셨던 분이요, 아는 것이 정말 많은 분이었어요. 가족과 가정을 돌보는 일 외에 어머니는 틀이 나는 대로 공공 활동에도 참여하였지요. 어머니는 가족과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마을의 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결정을 하는데 있어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였습니다. 가족 기도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또는



다른 일들과 같이 언제나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도록 부탁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굉장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족 가운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는 숙고해 보시고는 기도를 하곤 하셨습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난 후에 아버지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꼭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해답은 항상 영감을 받은 것임이 증명되곤 하였읍니다.”

젊었던 시절에 스포츠는 먼 장로의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미식 축구와 농구가 그러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집안 일이 끝나면 저녁에 우리는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집 앞 길에서 풋치 미식 축구(택클 대신 풋치를 하는 미식 축구)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대단히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요일에는 미식 축구를 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일요일에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중요성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집에서 안식일을 잘 지키며 생활하였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의 훈련을 통해 나는 안식일의 참된 영을 짚어서도 느꼈습니다. 나는 일요일이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차차 이해하게 되었으며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할 때 느끼는 기쁜 감정을 차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영광스럽게 지키면 여러분의 생활을 많이 변화시키게 하는 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영은 일주일의 나머지 날을 보내는 데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 생활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교회의 아이들에게 먼 장로는 다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복음대로 사는 데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복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같이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행복과 축복의 생활로 인도될 것입니다.”

\*



# 성경의 형제와 자매들

에그니스 켈프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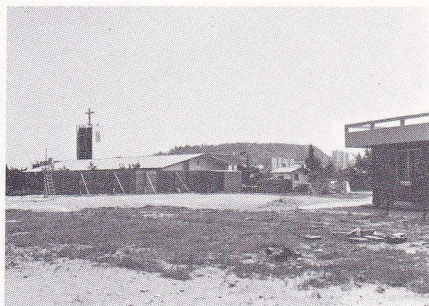


첫번째 항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이름과  
두번째 항에 있는 형제 자매의 이름을 짝지워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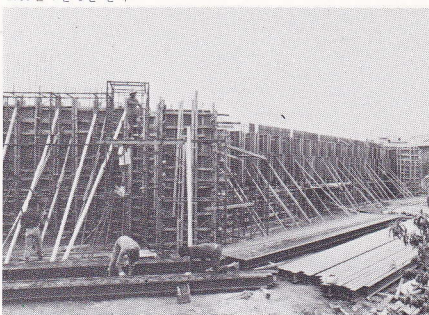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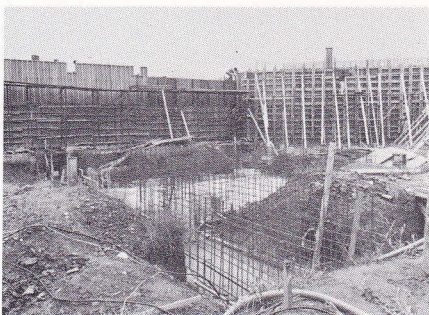
- |                      |                      |
|----------------------|----------------------|
| ① 모세 (민수 26 : 59)    | ㉔ 베나민 (창세 35 : 24)   |
| ② 야곱 (창세 25 : 25-26) | ㉕ 요한 (마태 4 : 21)     |
| ③ 마르다 (요한 11 : 1-3)  | ㉖ 아벨 (창세 4 : 1-2)    |
| ④ 솔로몬 (역상 3 : 5)     | ㉗ 아론 (민수 26 : 59)    |
| ⑤ 베드로 (마태 4 : 18)    | ㉘ 마르다 (요한 11 : 1)    |
| ⑥ 가인 (창세 4 : 1-2)    | ㉙ 에서 (창세 25 : 25-26) |
| ⑦ 요셉 (창세 35 : 24)    | ㉚ 나사로 (요한 11 : 1-3)  |
| ⑧ 마리아 (요한 11 : 1)    | ㉛ 압살롬 (역상 3 : 3)     |
| ⑨ 야고보 (마태 4 : 21)    | ㉜ 안드레 (마태 4 : 18)    |

해답 : ①-㉔ a-b  
②-㉕ c-d  
③-㉖ e-f  
④-㉗ g-h  
⑤-㉘ i-j  
⑥-㉙ k-l  
⑦-㉚ m-n  
⑧-㉛ o-p  
⑨-㉜ q-r

# 서울 신전 건축 현황



1983년 7월 3일 현재



1983년 9월 2일 현재

1983년 9월 17일 현재

